

서평 〈일상교회〉

세상 나그네들의 공동체

복음은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탁월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용기, 힘을 준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복음을 소유한 저자와 달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저자는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수님은 고립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한 백성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p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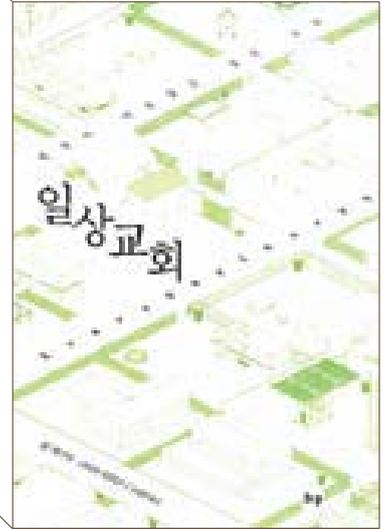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 받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지어져 간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전해준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는 “복음”과 “공동체”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영국 교회의 쇠퇴를 이야기하며 “일상생활에서 선교하는 일상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정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의 이것저것을 바꾸어서 사람들을 끌던 시대는 지나갔다.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성호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와 철학을 전공하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현재 개포동에 있는 성서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일상 교회>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다시 성경(베드로전서)으로 돌아가 참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장 “주변부에서 살기”에서 저자는 베드로전서를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로 본다.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밀려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때로 세상에서 적대와 배척을 당하고 소외당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장 “일상의 공동체”에서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선교적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타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질적인 문화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고민해야 하며, 관계를 맺은 후에는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공동체에 참여시켜야 한다.

3장 “일상의 목양”에서는 주변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한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세워진다.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평생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장 “일상의 선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에서 선교할 기회를 잡을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일상적인 삶에서 비그리스도인과 함께하라고 권면한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한다. 그렇게 할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5장 “일상의 전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누구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면서, 일상 속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어떻게 성경의 복음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누구나 문제

를 안고 살아가는 데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 하는 욕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와 목적, 의미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6장 “주변부에서 품는 소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참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써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주와 연합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며,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의 돌봄뿐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자원(물질, 사랑, 목회자)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자원은 기도임을 강조한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7장 결론에서는 일상의 교회를 가로 막는 장애물들로 “개인주의, 교만, 편안하게 지내려는 욕망, 두려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에 대한 해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일상교회>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새롭게 취해야 하는 특별한 선교전략이 아니다. 교회에 대한 혁신적인 발상도 아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일상교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는 항상 나그네였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주류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세상과는 다른 법을 따르고 다른 목적과 가치를 지니고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불편과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신이 나그네인지 아는 사람은 나그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홀로 두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과 공동체를 주셨다.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특별히 저자는 3장 “일상의 목양”에서 목양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진리 4가지를 소개한다. 1)하나님은 위대하시다. 2)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다. 3)하나님은 선하시다. 4)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오늘날의 교회가 <일상 교회>로 돌아가려면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적이 없는 성도들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복음의 터에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일상 교회>는 단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도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다. 복음을 경험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바라보며 거듭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염려될 때가 많다. 그들이 거듭나고 회심한 분명한 증거들이 없다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는 목회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상 교회>를 가로막는 모

든 문제의 해법은 복음이다. 복음이 선포될 때 “나”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정을 쫓는 거짓된 욕망을 부인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본서 5장 “일상의 전도”에서 복음 전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저자는 “누구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분명 성경의 복음 이야기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비참함에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우리는 우리가 고통과 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가지고 있다. 또 분명한 소망의 이유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과 공동체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그리고 성경(베드로전서)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꿈꿔 본다. 